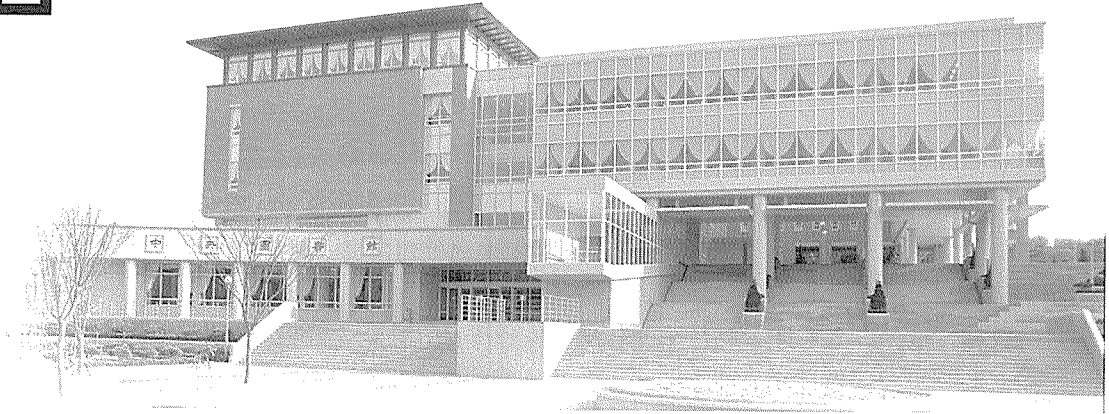


도서관탐방

최현성 직원은 물론 지역주민을 위한 초역의 정보제공처를 지리하며 있다고 있는

혜천대학중앙도서관을 다녀와서



대학의 심장은 도서관임을 증명한 혜천대학

혜천(惠泉 : '은혜의 샘'이라는 뜻이며 설립자의 호)대학은 깨끗하고 단아(端雅)하다. 이는 《도서관문화》 4월호 지면이 넘쳐 3월말에 방문했던 도서관에 대한 기억을 약 1달간 저장해 놓았다 다시 끄집어내는 첫 순간 필자의 머리 속에 떠오른 이미지였다. 남산 타워에서 서울의 복잡한 전경만 바라보다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 위에서 절제된 도시의 풍광을 보았을 때의 충격이라고 할까.

그렇다고 혜천대학이 20-3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진 신출내기 학교라 짐작한다면 오산이다. 1940년 충청남도 대전의원 부설 간호원양성소로 개교하여 대전간호전문대학(1979), 대전전문대학(1988)을 거친 혜천대학(1998)은 65년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면서 21세기의 미래지향적 전문직업인 양성을 목표로 중부권 최고의 종합전문대학을 추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대학 운영진의 목표는 그냥 구호에 그친 것이 아니었다. 21세기 대학의 경쟁력은 도서관에 있음을 간파한 대학 운영진은 전국 전문대학

도서관 중에서 가장 크고 현대화된 도서관을 탄생시켰다.

국가고시준비실에서 DVD 시청 커플렉스까지, 이용자를 우선하는 다양한 서비스

2004년 3월 지하 1층, 지상 5층의 웅장하고 쾌적한 환경을 갖추고 신축 개관한 혜천대학중앙도서관(관장 이범석, 이하 '도서관')은 면적 3,800여평, 열람



〈한참 떨어진 대학본관에서 정면으로 또렷이 보이는 '中央圖書館'이라는 다섯 글자에서 도서관에 대한 대학 측의 애정을 느낀다. 견학을 마친 타대학 도서관 직원이 '여기 4년제 대학이죠'라고 질문할 만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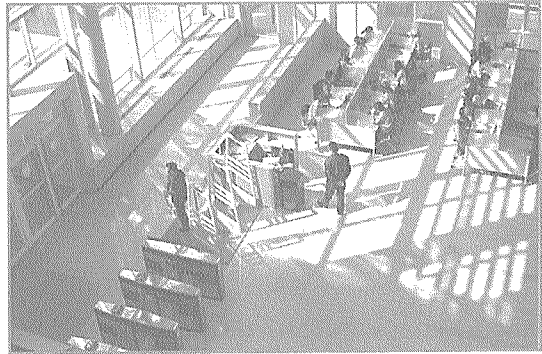
석 1,200석, 장서 240,000여권의 규모이다. 도서관은 6개 계열(17개 전공), 27개 학과로 구성된 해천대학의 재학생(4,500여명)과 교직원(160여명)뿐만 아니라 평생 지식을 제공하는 열린 문화의 산실로서 지역사회 주민에게도 개방되고 있다. 도서관 여건상 주민 개방을 1,700명 정도로 제한하고 있는데 추가 개방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고 한다. 주변에 공공도서관을 비롯해 주민에게 개방하는 대학도서관도 상당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이 몰리는 해천대학중앙도서관의 인기비결은 무엇일까.

우선 개관한지 이제 막 1년이 지난 신축 건물이라 '최첨단 시설과 세련된 인테리어'로 신세대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인다. 도서관 곳곳에 설치된 인터넷검색용 PC(사진 ①), DVD, VOD, 위성방송 시청이 가능한 전자정보실(사진 ②), 중·소규모의 세미나 및 멀티미디어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제1영상자료실(사진 ③) 등의 기기와 주제별 자료실의 가구들(사진 ④)은 최상급으로 갖추었다.

또 하나의 비결은 '이용자를 우선하는 다양한 서비스'로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소장자료를 통합검색할 수 있는 웹기반 시스템의 구축, 자동 냉·난방시설과 기능성테이블과 의자, 조명등이 설치된 600석의 좌석을 보유한 자유열람실, 국가고시 및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재학생을 위한 144석의 국가고시준비실, 공부에 지친 학생들의 피로를 고려하여 최상의 화질과 음향시설로 마련한 제2영상자료실, 여유공간을 활용한 그룹토의실(12석짜리 총 6개실), 신세대들의 취향을 반영한 DVD 시청 키펀석까지 도서관 운영진들의 마음씀씀이를 곳곳에서 발견한다.

치밀한 업무 분석을 기반으로 인력 활용 극대화

하지만 도서관의 인기비결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사진 ①. 2층 로비 인터넷 정보검색 코너. 최신 펜티엄급 PC 32대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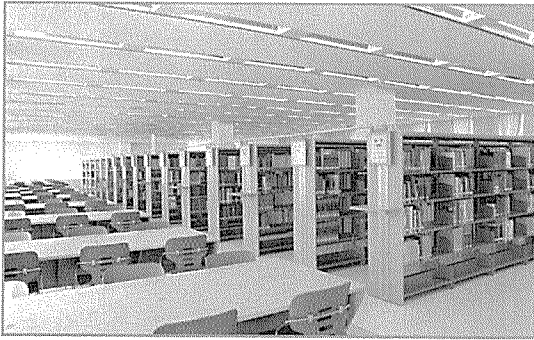


〈사진 ②. 2층 전자정보실. 실제의 사이버틱한 조명은 표지 사진에 서 실감할 수 있다〉



〈사진 ③. 2층 전자정보실 내 제1영상자료실. 63석〉

아마도 이렇게 잘 갖추어진 하드웨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최상의 서비스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된 도서관 직원들의 봉사정신이 아닌가 싶다. 도서관의 현재 직원수는 관장을



(사진 ④. 3층과 4층에 배치된 주제별 자료실. 60만 권까지 수장 가능하며 서가 간격이 넓어 북트럭 이동 등 업무 공간도 여유롭다.)



(<http://library.hcc.ac.kr>)

제외하고 총 10명(조교 2명 포함)이다. 이는 단순히 직원수만 비교한다면 전문대학 실정에서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하나 그 속내를 살펴보면 결코 많은 편이 아니다.

장서수가 단행본만 24만권에 달하며, 각종 간행물, 비도서자료 관리와 운영, 주제별 자료실만 해도 10곳이 넘는다. 타 대학들과 달리 전일제 보조요원은 단 한 명도 없이 하루 1시간씩 업무

를 도와주는 근로학생 10명만이 직원의 일손을 도와 주며 나머지 모든 일들은 직원들의 몫으로 남는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도서관측에서는 부족한 인력으로 이 큰 규모의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이용자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세밀한 업무분석을 거쳐 업무의 체계화를 도모하고자 많은 노력을 경주해왔다고 한다.

도서관 전 직원이 참여하여 개개인의 성향을 비롯하여 업무에 대한 세세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마련된 두툼한 '운영 매뉴얼'만 있으면 갓 입사한 직원도 바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고 대출·수서 담당 직원도 언제든지 전자정보실 기계를 만질 수 있을 정도이다. 업무 시간을 아껴 개관 전 10분 회의, 폐관 후 10분 회의에 전 직원이 참여하여 매일 매일의 운영 노하우를 교환하는 팀워크야말로 최첨단 시설과 대학 운영진의 지원에 더불어 도서관의 가장 큰 자산일 것이다.

세계 기네스북에 등재된 세계 최대 규모의 카리용(Carillon, 크기와 모양을 달리한 여러 개의 종을 음계에 따라 틀에 매달아 쳐서 소리를 내게 된 악기)이 설치되어 있는 78m 높이의 혜천타워에 올라가 캠퍼스를 내려다 본다. 그곳에는 미래의 인재들이 저마다의 꿈을 펼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고, 그러한 푸른 꿈을 든든히 뒷받침해주는 '도서관'이 바로 그 자리에 있었다. 도전하는 젊은이들의 푸른 꿈을 지켜주는, '도서관'의 존재는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을 새삼 깨달으며 교정을 나선다. [글: 박경아, 사진: 혜천대 약중앙도서관]